

33 관음 성지 순례

엔교지 절은 일본 중앙 지역의 7 개 현에 걸친, 1,000 킬로미터를 넘는 순례길에 따른 27 번째 성지입니다. 33 개 사원을 순회하는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는 718 년에 성립하여 지금도 일본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순례길의 하나입니다. 각 사원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절을 방문함으로써 사후에 극락정도에 갈 수 있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마니텐(摩尼殿)은 이 33 개 순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. 1239 년에 승려 묘카쿠가 조각한 여의륜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

자동차나 케이블카 등의 근대적인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 순례자는 이 순례길들을 걸어다녔으며, 도중에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. 일찍부터 33 성지 순례를 완료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진보적인 생각을 했던 승려들은 이 순례 여정들의 축소판을 만들어 한 곳에서 간단히 모든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. 이러한 장소는 ‘우쓰시레이조’(성지를 모방해 만든 장소)라고 하며, 엔교지 절의 마니텐으로 통하는 돌계단 아래쪽 가까이에 그야말로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. ‘사이코쿠 33 관음 성지’라고 하는 이 작은 불당에 33 성지의 모든 관음보살을 축소한 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, 순례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순례길의 모든 여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